

12 특집

‘국제캠퍼스가 걸어온 길, 경희가 나아갈 길’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경희기록관이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 전시 ‘국제캠퍼스가 걸어온 길, 경희가 나아갈 길’을 개최한다. 1970년대 말,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앞으로 50년 동안 특색있는 학과를 주축으로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며 학교의 미래를 그렸다. 그 뜻은 넓은 부지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계획으로 이어졌다. 마침 조 박사의 뜻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자는 시대적 배경, 지방에 대학을 육성하자는 정부 정책과 흐름을 같이하기도 했다.

당시 조 박사는 캠퍼스에 물이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개월 동안 부지를 물색하던 조 박사 눈에 띈 곳은 경부고속도로 신갈 부근. 그곳엔 신갈호수가 있었고 서쪽엔 적절한 산등성이가 있었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차장은 “서울캠퍼스가 고랑산을 끼고 있어 산 중심부지라면 국제캠은 기흥호수 옆에 위치해 물이 가까운 곳”이라고 설명하며 “설립자께서는 새로운 캠퍼스로 학교에 배산임수 구도를 완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다.

고심해서 터를 잡고 지주를 설득해 땅을 매입했으나 설립 인가를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학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서류를 반려했다. 고속도로에서 눈에 보이는 산림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갑론을박이 이어진 끝에 지금의 공과대학 부근과 학생회관 뒤편 능선 부근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조 박사는 발 빠르게 수원 방면 부지를 매입한 뒤 지금의 사색의 광장 쪽 호수 근처에 정문을 배치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했다. 그렇게 설립 인가가 떨어진 것은 입학시험을 5일 앞둔 때였다. 1979년 1월 10일, 국제캠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강릉 건물에서 학식 먹고 아르바이트로 도서관 공사

설립 초기, 캠퍼스에 건물은 세 동뿐이었다. 지금의 공과대학관(공대), 외국어대학관(외대), 체육대학관(체대)이다. 당시에는 건물에 번호를 붙여 불렀다. 이창수(일본어학 1984) 교수는 “학교 다닐 때는

공대, 외대, 체대가 각각 1호관, 2호관, 3호관으로 불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건물이 세 동이라 학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았다. 80년대에는 지금의 우정원 자리에 가건물을 세워 식당 쥘을 갖추고 널찍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이 교수는 “그 가건물을 ‘강릉건물’이라고 불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강릉건물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릉이어도 다행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이 교수는 기억했다.

황량했던 건 캠퍼스 내부만이 아니었다. 오늘날 국제캠 학생의 생활권인 영통동은 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개발됐고, 지금 정문이 자리한 곳 건너편은 당시 팔기밭과 포도밭뿐이었다. 번듯한 주택도 없어 통학하는 학생이 대다수였다. 학교 다닐 때 서대문에 살았다는 이 교수는 “학생은 주로 서울서 통학하곤 했다”고 했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은 방을 콘크리트로 나눈 ‘하꼬방’에서 많이들 지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마저도 “취업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3학년, 4학년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서 방을 구하니 학교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시외버스와 지하철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절,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했다. 정문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도로를 따라 달리면 신갈분기점이 나왔다.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강남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긴 뒤에는 오가는 일이 좀 더 수월해졌다. 수도권 캠퍼스로 통학하는 대학생은 전부 터미널로 모였다. 이 교수는 “이쪽 줄에는 안성에 가는 중앙대생, 저쪽 줄은 모현에 가는 한국외대생, 우리 줄에는 수원으로 가는 경희대생이었다”며 “강남이 오늘날처럼 변화한 지역이 되는 데에 경희대 학생들도 일조하지 않았나”는 너스레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설립 인가와 함께 확보해 둔 부지에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황수현(스페인어학 1987) 교수는 당시 4호관이었던 지금의 생명과학대학과 5호관인 국제경영대학까지 만들어진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빈 부지에 들어선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학생이었다. 당시 학생은 직접 돌을 나르고 기둥을 쌓아 올려 캠퍼스를 일궜다. 황 교수는



국제캠퍼스가 들어설 부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우측은 기흥호수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캠퍼스 안에 물을 들인다는 계획을 세운 원래의 조감도다. 오늘날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색의 광장 방면에 정문이 있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포장돼 있지 않은 험덕고개 모습이다. 당시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언덕을 직접 걸어서 건물을 오갔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1999년, 네오르네상스문이 생기기 전 정문의 모습이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는 “당시 학생들은 방학 동안 중앙도서관 공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증언했다. “폭이 백 미터가량 되는 건물을 지어야 하니 정말 많은 품이 들었다”면서도 “그래서인지 건물이 웅장하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건물에 깃든 학생의 땀방울을 아는 사람에게는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며 경희가 나아갈 길

단출하게 시작한 캠퍼스는 어느덧 설립 50주년을 목전에 뒀다. 오늘날 국제캠은 시작의 포부를 구현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 규모다. 개교 당시 8개로 출발한 학과는 현재 43개가 됐다. 입학정원은 1979년의 750명에서 2,442명으로, 전임 교원은 14명에서 470명으로 늘었다. 학문 연구 역시 크게 성장했다. 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 편수는 0.0149편에서 0.7726편으로, 연간 교외연구비 수주액은 10.2억 원에서 758.3억 원가량으로 늘었다.

지난 45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학교 인식이 요즘과 달랐던 것이 주요했다. 1984년에는 5,0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서울에서 수원으로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제캠이 지금처럼 자리를 잡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1983년 국제부총장을 필두로 국제캠을 전담하는 행정 조직이 하나둘 생겨났고, 1990년대는 중복된 명칭을 가진 학과를 정리해 이원화 캠퍼스라는 색깔을 확실하게 갖췄다. 2007년에는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을 바꾼 대내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2011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남 차장은 “대형 연구 시설이 필요한 학과, 특히나 이공계열이나 생명과학대학이 국제캠에 위치하며 학교 학문 수준이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희기록관 김희찬 관장은 “50년까지 남은 5년은 새로운 50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의 45년을 기록했는데, 50주년이 될 때는 지금의 전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